

문학권력과 번역
— <권장도서목록>이 아동문학 출판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 초 림
(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스페인이나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의 아동문학도서가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독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스페인이나 라틴아메리카 그 어느 나라의 독자가 읽었던 것과 동일한 작품을 읽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번역출판물이 실제로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이미 출간된 바 있는 그 원작과 동일한 것일까?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이, 혹은 한 권의 이론서가 번역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힘들이 개입한다. 어떤 책을 ‘번역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택의 행위부터가 이러한 힘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그것이 자국의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번역서’라는 형태로 나오기까지는 번역, 번

안, 발췌, 편집 등 거쳐야할 단계들이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역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베누티가 지적한 ‘자국 가치들, 신념들, 사회적 재현들’이라는 규범이 적용되기 마련이다(김희진 70). 사실 생각해보면 번역은 언어를 넘나드는 메시지 전달인 동시에 전체 사회와 문화의 영향 하에 놓인 현상이기도 하다. 과거의 번역학 연구가 전자, 즉 언어적인 전환의 방법론에 치중했다면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적 관점은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번역은 다른 어떤 형태의 번역보다도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분야이다(이상원, 2003 154). 출판번역의 이러한 특성은 아마도 번역 결과물의 최종 소비자가 다수의 대중이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더불어 출판번역이 지닌 상업적 특성은 그 어느 다른 분야보다 독자중심주의 번역을 선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도착어 텍스트 독자의 독서편의를 위한 자국화 번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선택권을 쥐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려는 작업이 행해지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작업은 번역자의 손을 떠나 문학시스템 내에서 ‘문학이 읽히고 쓰이고 개작되도록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Lefevre 9) 중 하나인 출판사, 더 구체적으로는 편집인에 의해 주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일 단면으로 아동문학의 출판번역에 나타나는 출판사 편집자의 개입 양상은 어떠한지, 또 이를 강요하는 구체적인 동인(動因)은 무엇이며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아동문학출판계에 문학권력으로 작용하는 <권장도서목록>¹⁾이다. ‘목표와 의도에 적절한 책들을 골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독서도움자료’(곽춘옥 154)의 역할에서 출발한 <권장도서목록>이 아동도서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아동문학 출판번역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스페인의 아동도서 『도둑맞은 이름』²⁾의 번역출판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작품의 ‘원문’과

1) 권장도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책이라 정하여 장려하는 도서를 말한다. 현재 권장도서는 추천도서, 선정도서, 표준도서, 필독도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권장도서란 이름으로 통일한다.

2) Tassies, José Antonio. (2010). *Nombres Robados*, Madrid: Ediciones SM.

번역자의 ‘납품번역본’ 그리고 출판사의 ‘최종출판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편집자의 납품번역본고 다시쓰기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권장도서목록>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아동문학 출판번역의 특성

2.1 아동문학의 특성

아동문학 출판번역은 여러 종류의 출판번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단 번역이 행해지기 이전부터 아동문학 자체가 성인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광춘옥은 어린이 도서가 어른과 어린이라는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지적한다(179). 작가와 독자가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내포독자와 실제독자가 다르다는 이원성(二元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발신자인 작가와 수신자인 독자의 연령대가 다르다. 일반 성인 문학작품은 작가와 독자가 모두 성인그룹에 속하지만, 아동문학의 작가는 대부분 성인 그룹에 속하고 대상은 어린이 그룹에 속한다. 수신자인 어린이와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쓰지 않는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해 동심의 세계를 그린 문학’이기 때문에 동심을 지닌 작가가 쓴다고 주장하지만 동심을 지녔다고 해서 어린이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다. 작가와 독자가 언제나 다른 두 사회에 속해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전제한 텍스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광춘옥 179).

작가와 독자만이 아닌 내포독자와 실제독자도 서로 다른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어린이라는 내포독자를 대상으로 창작하지만, 실제독자층은 어린이와 어른을 모두 포함한다. 마리아 니콜라예바(Nicolajeva 1996)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어린이 문학은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두 다른 수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수신자는 어린이이며, 다른 수신자는 어린이의 옆이나 뒤에 있는 어른이라는 것이다. 아동문학의 이런 모습을 ‘양가적 텍스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기에 소비사회의 소비주체 문제를 상정하면 더욱 복잡한 양상이 드러난다. 어린이 도서의 이원성은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문학의 경우 그 작품을 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는 아동이지만 재화와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 곧 성인이다. 이는 곧 작가나 출판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로 초등학생용 도서는 초등학생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주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들이 구매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³⁾ 그러다보니 상업용 도서의 일차적인 독자는 어른이 된다. 아동이 직접적인 선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포독자의 호불호를 떠나 성인보호자가 도서시장에서 아동문학작품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논술이 강조되는 입시제도와 나아가 독서가 학력자본 획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문화자본이 되어버린 풍토,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교육현실 등으로 인해 도서 선택에 성인보호자의 의견이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독서를 학력자본, 문화자본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흥미나 재미를 위한 작품은 선택대상에서 쉽게 제외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어느 이야기에서건 반드시 교훈적인 결말이 요구되며, 또 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한다. 박춘옥은 이에 대해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책읽기를 교양과 수양, 즉 즐거움보다는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상업용 아동도서 출판과 판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72).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장르인 순수 판타지 등이 권선징악을 뚜렷이 표방하지 않고는 결코 권장도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아동문학 출판번역에서의 변형과 개작

위에 언급한 아동문학 기존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아동문학 출판번역은

3) 이에 대해 박춘옥은 초등학생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어른이 구매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어른들 본인이 감동을 받았거나 읽히고 싶은 교육적인 책을 고르게 되는 점을 지적한다(180).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먼저 아동문학이 갖는 양가적 텍스트로서의 특성, 곧 아동과 성인 간 불균형한 관계로 인해 성인 번역자의 개입 양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Alvstad, 2010 56). 특수하고 한정된 연령층을 독자로 갖는다는 점에서 아동서의 번역이 성인 대상 도서의 번역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아동문학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에 가해지는 다양한 변형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⁴⁾ 김희진은 “문장의 길이, 독자를 향한 어투,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략 등 아동서 번역이 가져야 할 ‘내부적인’ 차이점들은 실제 아동서 번역을 담당하는 출판자나 번역자가 기획과 번역 단계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있다(71).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동독자라는 특성을 고려한 여러 전략적 이유 외에도 아동문학 번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변형 혹은 개작(adaptation)이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갖는 경우도 많다. 이데올로기 조작은 성인들(학부모, 교사)의 고정된 가치체계에 부합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불행한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개작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아동문학이 미국에서 번역, 출판될 경우 예를 들어, 상의를 입지 않은 어린 소녀의 삽화는 달리 변형시키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데올로기 조작의 예이다(Alvstad, 2010 23).

이에 대해 김희진은 아동문학이 ‘뚜렷한 대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있어 번역에서의 변형이나 개작이 사뭇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야’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번역이 사회지배적인 가치들의 확립에 일조하거나 특정 가치를 배제하는 사례는 은밀하고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71).

그렇다면 이러한 ‘변형’⁵⁾이나 ‘개작’⁶⁾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그간

-
- 4)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국내 번역학 박사과정에서도 이미 아동문학번역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저술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지선(2005)와 성승은(2010)의 박사학위논문 참고.
 - 5) ‘변형’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형식이나 모양 따위를 달라지게 함’이다. 본고에서는 이 정의를 번역행위에 적용, ‘번역 텍스트의 형식 또는 어구나 어휘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한정한다.
 - 6) 우리말로 ‘개작’이라고 번역되었을 때, 실제 원본에서는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adaptation’을 ‘개작’으로 번역하는가하면, 정연일·남원준이 번역한 Jeremy Munday의 『번역학입문』에서는 ‘rewriting’을 개작이라고 칭하였다. 국어사전

우리의 번역 연구가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의 대조, 더 구체적으로는 원본-최종번역출판본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해볼 때 기존의 연구가 출판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변형, 혹은 개작이 번역자 한 사람의 번역 전략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은 번역출판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킨 시각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번역자 단독으로 개작에 가까운 변형 작업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번역사가 [출판사로] 넘긴 번역물이 3-4회에 걸친 교정, 교열 작업을 통해 출판에 적합한 텍스트로 다듬어’(이상원, 2007 73)지는 상당히 길고도 복잡한 수정의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이미 납품된 번역 원고에 여러 형태의 변형이 가해질 개연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출판번역에 몸담고 있는 번역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납품번역본’과 ‘최종출판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일례로 이상원(2013 7)은 기획자, 편집자, 번역가, 마케팅담당자, 독자, 비평가가 협업하는 과정으로서의 출판번역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출판번역 장르에 따라 편집자가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출판사 측으로 하여금 편집단계에서 이렇게 ‘납품번역본’에 변형을 가하도록 하는 동인은 무엇일까?

3. 아동문학 출판번역과 <권장도서목록>

3.1 문학권력으로 등장한 <권장도서목록>

르페브르(Lefevre)는 문학시스템 내에서 번역이 세 가지의 주요 요소, 곧 문학시스템 안의 전문가(professional), 문학시스템 바깥의 후원자(patron) 그리고 지배적 시학(dominant poetics)의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Munday, 2006

에서는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지음. 또는 그렇게 한 작품’을 일컬으며,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따라 ‘작품의 내용을 고칠 목적으로 다시 쓰는 행위’로 한정한다. 다만, 인용된 저자들이 ‘개작’을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경우 원본에서 사용된 원어 용어를 가로 안에 삽입해 두었다.

181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문학시스템 안의 전문가란 비평가와 평론가, 교육자와 번역자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착어 텍스트가 취할 문학사조와, 나아가 이데올로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다. 문학시스템 바깥의 후원자는 ‘문학이 읽히고, 쓰이고, 개작되도록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으로 특정시대에 역사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예컨대 셰익스피어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출판인, 미디어, 정치적 계층이나 정당, 그리고 문학과 문학사상의 전파를 규제하는 제도나 기관, 곧 학술원, 문예지, 또 교육기관 등을 언급한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문학 출판계,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문학 출판번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학시스템 내부 전문가로서의 비평가, 평론가, 교육자, 문학시스템 바깥의 출판인, 제도나 기관, 그리고 지배적 시학이 교집합을 이루며 한데 만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권장도서목록>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1994학년도부터 적용된 새로운 입시제도에서 독서와 논술이 학력자본 획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문화자본’임을 천명하면서 아동도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독서, 논술 사교육시장이 성립, 급팽창했다. <권장도서 목록>은 이 과정에서 등장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김은하 51). 본래 출발은 ‘목표와 의도에 적절한 책들을 골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독서도움자료’였지만 권장도서의 선정과정에서 (문학과 문학사상의 전파를 규제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위임을 받은 비평가, 평론가, 교육자가 이미 문학장(文學場, literary field)을 독점해온 지배적 시학에 충실한 작품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정된 <권장도서목록>에 수록된 작품들이 사교육기관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거대한 고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목록이 아동도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이 목록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점에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패키지-0학년’과 같은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대형서점에서는 특설코너를 설치하기도 한다. 목록에 오른 책

7) 개인이나 여러 사회집단 혹은 제도들이 문학적 기득권을 선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장, 하나의 사회적 공간을 일컫는다. 여러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벌이는 경쟁과 대립, 투쟁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P. 부르디외가 도입한 개념이다. - 라영균(2009). 『문학장과 문학성』, 『문학장과 문학권력』서울: 한국외대출판부.

이 대단한 ‘권위’를 갖고 학부모나 학생을 압박한다. 이런 암묵적 강제성은 목록만이 유통되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만든다(곽춘옥 184). 또한 이 목록은 종종 필독서로 둔갑한다. 학부모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관련 행사를 할 때 이 <권장도서목록>은 종종 각 학년의 필독서로 지정되곤 한다(김은하 64).

여기에 출판번역의 특성, 곧 이윤을 추구하는 출판사의 상업적 특성이 더해져 <권장도서목록>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기에 이르렀다. 사실 아동들이 도서를 접하게 되는 통로는 주로 가정, 학교, 공공도서관이고, 따라서 아동도서 선택의 주체는 학부모-교사-학교도서관 사서-공공도서관 사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 아동문학 전문가들은 공히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추천도서나 <권장도서목록>을 꼽는다(곽춘옥 181). 특히 이중에서 <권장도서목록>은 현재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언론매체나 다양한 기관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실제 도서관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은 이들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아동 및 청소년도서를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이연옥 49).

이렇듯, <권장도서목록>에 선정되면 책에 대한 광고는 물론 일정 부수의 판매가 보장되므로, 작가나 출판사로서는 그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따라서 출판사는 이 목록에 실릴만한 주제, 친화적인 경향의 작품을 출판하려 든다(김은하 64). 이러한 경향은 출판사가 번역, 출판할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며 이미 납품된 번역 원고에 ‘변형’, ‘개작’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출판사의 편집방향은 뚜렷이 권장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들의 경향을 따른다. 물론 번역, 출판되는 모든 아동문학서적이 직접적으로 <권장도서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을 겨냥하고 의도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납품번역본을 일률적으로 변형, 조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존재하게 된 이상 이를 고려하지 않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권장도서목록>에 오른 작품들의 성향을 파악한 출판사들이 상징자본⁸⁾과 경제

8) 『문화비평용어사전』(조셉 칠더즈 1999)에 따르면 상징자본이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함께 부르디외가 자본의 한 종류로 분류한 것으로 명예나, 명성, 위신 등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한 집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정이 상징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권위와 명예의 재생산에 투입되는 의례와 전략 등을 포함하는 매우 유동

자본을 늘리기 위해 목록의 권위에 의존하게 되고 목록이 지니는 상징자본이 출판사의 경제자본으로 쉽게 전환될수록 이에 대한 출판사의 의존도는 점점 심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목록의 상징자본을 확대한다(김은하 62). 이렇게 아동문학의 생산부문과 비평부문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아동문학 문학장에 주류를 형성하고 이들 상징자본이 재생산되는 지배구조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아동독서교육을 위한 보조도구에서 출발한 <권장도서목록>이 강력한 문학권력으로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3.2 <권장도서목록>의 지향점

이렇듯 아동문학계에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권장도서목록>의 도서 선정기준은 선정기관에 따라, 곧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장도서 선정 현황과 실태를 조사, 분석한 박사학위논문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강향옥은 아동 대상 <권장도서목록>들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목록의 전반적인 도서선정 평가 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요약, 분류한 바 있다.

표 1(강향옥 70)

일반적 측면	1. 저자: 저자나 위은이의 학문 활동과 출판사의 권위가 뚜렷한 작품인가? 2. 배경: 작품이 쓰여진 연대나 시대적 배경이 확실한 작품인가? 3. 용이성: 흥미가 있고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도서인가? 4. 교과와의 관련성: 교과 학습과 관련이 있고 교육 목적 및 목표에 상응하는가?
내용적	5. 창의성: 진리를 탐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인가? 6. 확산성: 다양한 세계의 경험을 통해 나와 다른 삶과 문화가 있음을

적인 성질의 자본이다.

측면	<p>알려주는 작품인가?</p> <p>7. 사고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작품인가?</p> <p>8. 교육성: 인간적 감동으로 바람직한 심성을 기를 수 있는 작품인가?</p> <p>9. 흥미성: 이야기의 구성이 재미있는가?</p> <p>10. 건강성: 선의에 찬 밝은 내용으로 건강한 시민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인가?</p> <p>11. 문예성: 섬세한 미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작품인가?</p> <p>12. 정체성: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는가?</p> <p>13. 다양성: 정의적, 인지적 조화를 위한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인가?</p> <p>14. 지향성: 주인공이 바른 인간상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p>
형식적측면	<p>15. 표지는 책의 내용을 잘 함축했으며 오자, 탈자가 없고 띄어쓰기나 부호가 알맞게 되어 있는가?</p> <p>16. 색채와 삽화가 조화를 이루고 여백 및 지질, 포장 및 제본 크기가 적당한 도서인가?</p>

위의 <표 1>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저자와 역자의 신뢰도, 작품에의 접근성과 더불어 교과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목적을 수행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제도권 학교생활에 충실해야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내용적 측면>의 경우는 대략 ‘인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지적인 면’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 다양성의 체험과 비판적 사고 등이 중시되는 동시에 ‘감성적인 면’에서는 인간적 감동과 바람직한 심성, 선의에 찬 밝은 내용과 주인공의 바른 인간상 지향 등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권장도서목록>은 제도권 내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밝고, 건강한 삶을 그리는 내용의 도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권장도서목록>이 아동문학 출판번역에 미치는 영향: 사례분석

분석 대상이 된 『도둑맞은 이름』은 2009년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그랑프리를 수상한 스페인 아동문학작가 호세 안토니오 타시에스(José Antonio Tassies)의 작품으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독특한 삽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왕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출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본 작품이 한국에 번역 출판되던 시기, 도착어 텍스트를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상황 역시 학교 폭력과 왕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 당시부터 번역 출판되었을 경우 사회적 반향이 클 것임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출판사의 편집인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번역, 출판 과정에서 편집자에 의해 행해진 변형에 대해 살펴볼 때, 출발어권 사회나 도착어권 사회 모두에 초미의 관심사인 공통의 핫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언어권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술하는 방식, 또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변형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 독자들에게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충실성’을 기본전략으로 삼은 번역자의 ‘납품번역본’이 ‘최종출판본’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그 예를 살펴보고 아동문학번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관점과 앞에서 언급한 <권장도서목록>의 지향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2>9)

A> Cada mañana, todas las cosas buenas del mundo, la luz nueva, el olor del horno, están puestas para Ana, Berta, Carlos y Daniel, para Ernesto, Flavia, Gerda, Hassan e Irina. Todas las cosas buenas, las sonrisas, las palabras que se dicen bajito, son para Jaime, Karen, Luisa, para Manuel,

9) 원문은 알파벳 대문자(예: A), 납품번역본은 알파벳 소문자1(예: a,1), 최종출판본은 알파벳 소문자2(예: a,2)로 명명하였고, 납품번역본에 있었지만 최종출판본에서 삭제된 내용은 가운데 줄(예: 삭제됨)로, 첨가된 내용은 밑줄(예: 첨가됨)로 표시하였다.

Nuria, Orilo y Paula. Las cosas buenas son para Quim, Raisa, Susana y Tania, son para Unai y Wanda, son par Xenia, son para Yolanda, son para Zaida. No son para mí.

a, 1> 이 세상 좋은 것들 전부 그러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빛, 오븐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는 아나, 베르타, 카를로스 와 다니엘, 그리고 ~~에르네스토~~, 플라비아, 헤르다, ~~허산~~, ~~어라나~~, 애네들 꺼야. 좋은 것 전부, 깔깔대는 웃음 소리와 소곤소곤 속삭이는 말들, 이런 건 전부 하이메, 카렌, 루이사, 또 파 누엘, 누리아, 오리올과 파올라, 애네들 꺼고. 좋은 것들은 콧, 라이사, 수사 나와 타니아, 우니아와 ~~완다~~, ~~세니아~~, ~~올란타~~, ~~자이다~~의 것일 뿐, 내겐 아무 것도 없어.

a, 2>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 오븐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발끝에 닿는 폭신한 잔디 이런 것은 베르타, 카를로스, 다니엘, 플라비아, 헤르다를 위한 거야. 살랑살랑 부드러운 미소, 깔깔대는 웃음소리, 소곤소곤 속삭이는 말, 이런 것은 하이메, 누리아, 오리올, 파올라를 위한 거야. 세상의 좋은 것은 모두 라이사 타니아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

B> porque yo no tengo nombre. Me lo robaron en el colegio

b, 1> 나는 이름이 없거든. 학교에서 애들이 내 이름을 훔쳐갔어.

b, 2> 왜냐하면... 난 이름이 없거든. 아이들이 내 이름을 훔쳐갔어.

C> Allí me llaman empollón porque estudio.

c, 1> 커커션 나를 공부벌레라고 불러.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런대.

c, 2> 아이들은 나를 ‘벌레’라고 불러. 공부벌레...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대

D> Allí me llaman cobarde porque no pego.

d, 1> 커커션 또 나를 겁쟁이라고 부르지.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아서 그런대.

d, 2> 아이들은 나를 ‘겁쟁이’라고도 불러. 누가 괴롭히거나 때려도 늘 참기 만 하니까

E> Una vez tuve una amiga, pero los otros se dieron cuenta y me la quitaron.

<p>e, 1> 한번은 여자 친구가 생긴 적이 있었어.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채곤 빼앗아 가버렸어.</p>
<p>e, 2> 한번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긴 적이 있었어. 우리는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훼방 놓았어. 결국 난 그 친구를 잃고 말았지</p>
<p>F> Mi colegio, mi prisión. Cada curso, una condena.</p> <p>f, 1> 학교는, 내 감옥이야. 한 학기마다, 감옥을 한 번 갔다 오는 거지.</p> <p>f, 2> 학교는 감옥 같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야</p>
<p>G> Dicen que es cosa mía, que vivo en mi mundo, que veo las cosas al revés.</p> <p>g, 1> 사람들 말로 그건 내 문제래. 내가 내 세상 속에서만 산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거꾸로 본대.</p> <p>g, 2> 어른들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대. 내가 내 속에 숨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나</p>
<p>H> Pero, si ves unos pantalones volando por el vestuario, seguro que son los míos.</p> <p>h, 1> 하지만 네가 본 그 바지, 탈의실을 날아다니던 그 바지는 내 바지야.</p> <p>h, 2>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바지가 휘휘 날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니? 내 바지야. 아이들이 내 바지를 이리저리 던지며 장난을 치는 거야</p>
<p>I> Y cuando suena el último timbre, salgo de prisa y me escondo hasta que todos se van.</p> <p>i, 1> 마지막 종이 울리고 나면 난 급히 나와 몸을 숨기지. 모두가 다 가버릴 때 까지.</p> <p>i, 2>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나무 뒤를 서성거리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모두 사라질 때까지.</p>
<p>J> Esta tarde, cuando he llegado a casa y me he visto en el espejo del ascensor, he decidido subir por las escaleras.</p> <p>j, 1> 오늘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난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p>

j, 2>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어 난 왜 아이들과 다를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길게 길게 이어진 계단이 보였어 계단을 따라 위로 위로 올라갔지.

K> El el último piso, me he asomado por la barandilla.

k, 1> 맨 꼭대기 층에서 난간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 어지럽지는 않았어.

k, 2> 옥상에 올라가 난간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았어

L> Pero tú, que has querido prestar atención a lo que me pasa, sabes bien que solo los pájaros vuelan. Gracias por recordármelo. ¿Cómo te llamas?

l, 1> 하지만 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준 너는 새들만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크걸 기억하게 해줘서 고마워. 네 이름은 뭐니?

l, 2> 나는 늘 이렇게 혼자였어. 아. 맞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네가 있었구나 잠시 잊고 있었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 이름은 뭐냐

3.3.1. 아동문학 번역의 일반적 특성에 준하는 변형

3.3.1.1. 모호성(ambiguity)의 배제

기존의 연구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문학 번역의 주요 특성으로는 1. 언어적 단순화, 2.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3. 도착어 규범 중심, 4. 외연화, 5. 리듬의 중요성, 6. 성인의 이데올로기 반영 등 여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승은, 2010 37). 이중 외연화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드러나 있지 않거나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 전반적인 모호성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b,2>와 c,2>의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첨가한다든지(벌레라고 불러, 공부벌레...) 설명을 덧붙인 경우이며 i,2>에서 역시 원문에서는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묘사한 내용에 대해 긴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종이 울리고 나면 →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면/ 난 급히 나와 몸을 숨기지 → 나는 곧

장 집으로 가지 않고 나무 뒤를 서성거리/ 모두가 다 가버릴 때까지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렇듯 아동문학에서 내용상의 모호함을 없애려는 시도에 관하여 알브스탄(2008 228)는 “여러 상반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 애매모호한 서술들은 성인문학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동문학에서는 적합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학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의 번역에서 실제 원본보다 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만 한 일이다”라면서 부가 설명 삽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3.3.1.2. 삽화를 텍스트로 전환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상징성이 높아 자칫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삽화의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첨가하는 경우이다. 이도 역시 넓은 범주에서 ‘외연화’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 전략은 원문에서 간결한 문장이 상징성 높은 삽화와 결합하여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이 빛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e,2>의 경우 원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삽화에는 나타나는, 두 친구가 마주 서서 책을 주고받는 모습을 글로 나타내 주었고, h,2>의 경우 원문에서는 ‘탈의실’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라고 설명을 덧붙이면서 ‘아이들이 내 바지를 이리저리 던지며 장난을 치는’이라는 말로 삽화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j,2>에서도 역시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진 주인공의 얼굴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치는 삽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난 왜 아이들과 다를까’라는 문장을 삽입한 경우이다. 오설리번(O’Sullivan 2006)은 아동문학작품번역에서 번역의 조작으로 인해 작품내의 삽화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이 변화를 겪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면서, 번역자가 그림 속에 내재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양 텍스트 사이의 격차를 좁히려고 시도하는 까닭에 열린 상태로 남아있던 원본의 텍스트와 삽화가 번역본에서는 훨씬 더 폐쇄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광순옥은 초등생을 위한 문학도서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언급하면서 “어른의 개입은 주로 그림책에 많이 해당한다. 아직 어린이들은 그림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전문가나 어린이 책

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글이나 그림이 상징하거나 은유하는 것을 찾아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출판사에서는 간단하게 책에 정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할 때 안내서를 동봉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195)면서 출판사 측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를 주문하고 있으며 본 작품의 편집인 역시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2. <권장도서목록> 지향적인 변형

3.3.2.1. 여백의 확보를 위한 생략

먼저 a,1>에서 a,2>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원문에 언급된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어려운 외국어이름을 생략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삽화를 위한 공간 확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삽화와 여백의 조화는 권장도서 기준의 <형식적 측면>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요소로서 아동도서에서 여백에 맞춘 글자 수의 조정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문에서 알파벳 A에서 Z에 이르기까지 각 철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하나씩 모두 열거함으로써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아이들을 언급하려던 의도는 희생되고 말았다. 물론 이름이 모두 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나 원작에 언급된 아이들의 수가 출판번역본에서 현저히 감소되어 적어도 ‘세상 많은 아이들’이라는 의미도 전달되지 못하였다.

3.3.2.2. 긍정적 사고방식으로의 유도

우선 B>와 b,1>에 공히 나타나는 ‘학교’라는 구체적 장소가 최종출판본 b,2>에서는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후의 c,2>와 d,2>에서 역시 ‘alli’ 곧 ‘거기에서’라고 구체적으로 학교를 언급한 것을 삭제한 것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너무 강하게 각인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더불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편집인의 의도는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쪽으로 독자를 이끌려는 움직임이다. 여자친구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했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건전한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e,1>의 ‘빼앗아 가버렸다’는 표현을 ‘그 친구를 잃고 말았다’라고 완곡하게 변

형시킨 점, 또 f,1>에서 학교=감옥, 한 학기=수형기간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옥 같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야’라고 강도를 조절한 것 역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편집인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D>나 d,1>의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아서 그런대’가 d,2>에서 ‘누가 괴롭히거나 때려도 늘 참는다’로 변형되는 과정 역시 <권장도서목록> 평가기준의 ‘주인공의 바른 인간상 지향’과 관련이 있다. 주인공을 ‘때린다’는 구체적 폭력 행위와 연관시키지 않고, 선한 주인공은 ‘참고 견뎌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3.3.2.3. 충격적인 결말의 변형

특히 위의 표2에 나타나는 변형 가운데 <권장도서목록> 지향적인 출판 편집인의 개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은 f,1>에서 f,2>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원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새→날아감→투신으로 이어지는 상징을 번역문에서는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원작에서 특정부분을 발췌해 내거나 생략해버리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번역자 혹은 편집자의 ‘선택’을 전제하며, 이 선택에는 ‘핵심적이다/핵심적이지 않다’, ‘내용 전달에 중요하다/ 부차적이다’라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저자가 원작을 통해 구축했던 작품 세계가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여기저기 난도질당하고 왜곡된 세계로 탈바꿈하는 위험이 발생한다(O’Sullivan, 2006). 이 부분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문에서는 열린 상태로 마무리된 결말이 번역문에서는 명확하게 닫힌 결말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원문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은유적 표현이 제거됨으로써 죽음이라는 암운을 걷어내고 해피엔딩의 요소를 적극 도입한 것이다.

편집자 측에서 이렇게 대담하기까지 한 변형을 가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우선 주인공이 투신자살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피해가고자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세상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게 될, 아직 뚜렷한 가치관이 성립하기 이전인 아동 독자들에게 있어, 번역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앞서 강조하였다시피 ‘교육’적인 목적으로, 즉 충돌 없이 기존의 안정적인 사회 질서 내에 무사히 적응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발휘되기 마련이다(김희진 72). 따라서 충격적인 결말,

자칫하면 투신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너무나 사실주의적인 결말에 부담을 갖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또 한 가지는 해피엔딩에 대한 강박을 꼽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아동 대상 문학작품에서 해피엔딩이 강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Juan David Gutiérrez 2010)는 아동문학번역에서 해피엔딩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데르센의 『성냥팔이소녀』가 1846년 덴마크에서 출판될 당시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성냥을 모두 그어 불을 피우고 잠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이었다면 1944년 미국에서 번역될 때는 추위에 잠들어 있는 소녀를 한 자상한 노부인이 발견하고 입양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개작되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 아동문학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동문학장에서 결말 처리에 관한 문제는 빈번하게 논의되어온 주제 중 하나이다(조은숙 28).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결말’이라는 표현은 통상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에는 화해롭게 해결되는 것을 가리킬 때가 많다. 동화 창작 관련 글들은 대개 작품의 결말부를 독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작가들 역시 자신의 창작 경험을 반추하며 비극적이거나 모호한 결말보다는 독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결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조은숙 30). 또 다른 이유로는, 길게 생각하는 긴 호흡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다. 결말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아동 독자에게 맡겨둬으로써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오해를 피하고,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여(이 작품의 경우,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동료를 모른척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달라는) 확실한 교육적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바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형의 의도, 곧 충격적인 결말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해피엔딩을 강하게 암시하며, 나아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목격자가 되었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임해야하는지 좀 더 명확한 지시를 내려줌으로서 교육적 효과를 보려는 의도는 모두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바른 인간상을 지향하며’, ‘바람직한 심성을 기르도록’하는 권장도서의 평가 기준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본 작품의 번역, 출판과정에서 ‘납품번역본’에 행해진 편집자의 변형 및 수정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권장도서목록>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의 3.3.2.1에서 살펴본 ‘여백의 확보를 위한 생략’이라든지, 3.3.2.2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의 유도’를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은 아동문학 번역의 일반적 특성에도 역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행해지는 모든 ‘변형’과 ‘개작’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위에서 고찰한 『도둑맞은 이름』의 ‘납품번역본’과 ‘최종출판본’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원작의 의도를 그대로 살린 ‘납품번역본’과는 달리 ‘최종출판본’에서는 원작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원작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실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밝고’, ‘바람직’하며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교육적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며 이는 곧 <권장도서목록>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4 <권장도서목록> 영향 하에 놓인 아동문학 출판번역의 문제점

번역·출판되는 아동문학작품이 전체 아동문학 출간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아동문학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장도서목록>이 해외아동문학작품의 번역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아동독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가 아동들로 하여금 번역문학을 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은 번역 작품을 통해서 언어능력을 신장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풍부한 간접경험을 하여 교육적 가치를 실현(성승은, 2010 19)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독서경험을 방해하고, 획일적이고 강요된 방식의 채워기를 통해 아동의 독서주도성을 훼손한다는(김은하 63) 비난을 받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지향성을 번역 작품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면 외국작품 번역문학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이라는 장점은 결코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번역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 아동문학을 번역, 출판하는데 있어서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작이 출간된 나라에서는 용인되었으나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는 - 부분을 모두 생략하거나 변형한다면 번역의 가장 일차적인 전제, 곧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아동문학이 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번역 장르임을 고려하여 스키포스(Skopos)이론과 아동문학번역이 불가분의 관계(신지선, 2005 129)라고 보고 도착어 텍스트의 목적에 맞춰 번역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없지 않으나 이는 대개 언어사용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스키포스이론에 기대어 언어사용 외적 요소에까지 도착어 텍스트의 목적을 강조하게 될 경우, 결국 아동독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교육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주체가 번역 텍스트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렇게 <권장도서목록>이라는 모범텍스트를 따라가려는 경향은 정전(正典, Canon)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권장도서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정전화’에 대한 선정 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권장도서 선정에 관여하는 주체와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가 비판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김근호 275) 상황에서 무비판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것은 또 다른 우(愚)를 범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나가는 말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텍스트는 없다. 더군다나 다시쓰기와 조작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번역텍스트는 말할 것도 없다. ‘번역이 서로 다른 언어 텍스트를 의미의 손실 없이 전달하는 투명한 과정인 척 하는’(Niranjana 1992) 시대는 지나갔다. 번역자 자신의 문화적, 이념적 바탕으로 인해, 혹은 번역사 개인의 번역 전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 간의 차이를 넘어 일차적으로 번역이 완료된 텍스트에 광범위한 변형과 개작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가진 출판번역에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비단 앞에서 살펴본 아동문학번역출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리라.

대부분의 출판업계가 문학계를 장악한 지배적 시학에 순응하는 작품을 양산함으로써 기존의 상징자본에 기대어 경제자본을 늘려가려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문제는 이렇게 문학권력의 지향점을 그대로 좇는 우리 번역출판계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하는 변형과 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작으로부터 당연히 얻어야했을 많은 것들을 잃고 있으며 이를 다시 복원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작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그것이 형식적 등가를 추구하는 방식이든, 역동적 등가를 좇는 방식이든—되살려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번역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빛을 잃고, 독자들은 독자들대로 원작의 향기를 즐기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 많은 것을 감상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게다가 이 모두가 독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획일화, 정형화된 번역문학을 양산해 낼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시대의 한 흐름으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이러한 공공연한 관행을 지양하고 번역문학 출판 작업 과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기 위한 질치부심이 있어야할지 연구자와 실무자가 합심하여 적극적 논의에 나서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향옥 (2001).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춘옥 (2011). 「초등 상업용 문학도서의 현황과 문제점」, 『독서연구』 26: 171-202.
- 김근호 (2011).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의 비판적 검토」, 『독서연구』 26: 265-302.
- 김은하 (2005). 「권장도서목록을 버려야하는 이유」, 『창비어린이』 가을호: 49-67.
- 김희진 (2011). 「문학작품의 요약번역에 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6(1): 65-85.
- 라영균(2009). 「문학장과 문학성」, 『문학장과 문학권력』서울: 한국외대출판부.
- 성승은 (2005).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

- 역』 7(1): 69-98.
- _____ (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시 스키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 6(2): 125-140.
- _____ (2005). 『아동문학 영한 번역의 ‘규범’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원 (2003). 「출판번역: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통번역학연구』 7(4): 145-157.
- _____ (2007). 「출판번역의 교정 교열」, 『국제회의통역과번역』 9(1): 73-85.
- _____ (2013). 「출판번역 과정 속에서의 번역가」, 『2013년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가을학술대회 논문 발표집』: 3-7.
- 이연옥 (2006).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47-72.
- 정연일·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정옥년 (2011). 「도서의 수준과 도서 선정에 관한 사회적 요인 탐색」, 『독서연구』: 97-136.
- 조은숙 (2010). 「동화는 해피엔딩?」, 『코칭능력개발지』: 28-40.
- 황종연 옮김. (1999). 『현대문학. 문화비평용어사전』, 서울: 문학동네. (Childers, Joseph. (1995). *The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and Cultural Critic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Alvstad, C. (2008). "Ambiguity Translated for Children: Andersen's Den standhaftige Tinsoldat' as a Case in Point", *Target* 20(2): 222-248.
- _____ (2010).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
- Davies, María González & Ottinen, Ritta. (eds.) (2008). *Whose story?: Translating the Verbal and the Visual in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Lathey, G. (eds.). (2006).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Lefevère, A. (1992). *Traducción, reescritura y la manipulación del canon literario*. Salamanca: Ediciones Colegio de España.
- Nicolajeva, M. (1996). *Children's Literature Comes of Age*, London: Taylor & Francis Group.
- Niranjana, T.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Sullivan, E. (2006). "Translating Pictures",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Gallian Lathey (ed.) 113-121.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웹사이트

- Gutiérrez, J. D. (2010). "Adaptación de literatura infantil", <http://traduccion.about.com/od/tiposdetraduccion/a/Adaptacion-De-Literatura-Infantil.htm>

-분석대상도서

- Tassies, J. A. (2010). *Nombres robados*, Madrid: Ediciones SM.
- 타시에스, 호세 안토니오, 성초림 옮김 (2013). 『도둑맞은 이름』, 서울: 푸른숲 주니어.

[Abstract]

Literary power and Translation

Seong, Cholim
(HUFS GS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Lists of recommended books> exerted upon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Every kind of texts is under the social influence and nothing can be exception. Much more it would be in case of the texts of translation, especially of the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In Kore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emphasizing the reading comprehension competency of the children, the <Lists of Recommended Books> compil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or associations, whose original purpose was to assist the consumers -parents, teachers or librarians- in selecting adequate books for their needs, appeared as a great literary power in the field of children's literature. Not only Korean books but foreign ones are under its influence, as the editors of publishing houses do make transformation or manipulation on the texts translated by translators on purpose of making them acceptable for the criteria of the <Lists of Recommended Books>. As we observed in more details in the case of the publication of *Nombres robados* (*Stolen names* in Spanish), above mentioned transformation and manipulation made by editors are oriented towards the <Lists>. Now it's time to decide if we will accept this phenomenon as a natural tendency in translation for the publication of this era or seek for the new paradigm in the working process for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books.

▶ Key Words: literary power, lists of recommended books, publication of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transformation and manipulation

성초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서과

kkongho@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